

현성 스님은 ... 1938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현성(玄暎)스님은 서울 선학원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및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수선안거에 들었다. 도선사 실달승가학원과 국민대를 졸업 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 동 대학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중앙총회의원(4, 5, 6, 8대), 도선사 주지, 청담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장, 동국대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등 중단 내외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 흥은동 현성정사에 주석하며 현재도 안양교도소 불교 종교위원회 회장,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으로 재소자교화와 청소년포교 활동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다. 스님은 종정 표창을 4차례 받은 것을 비롯해 복지부문 목련장, 교정교화부문 동백장, 통일안보부문 모란장 등 국민훈장을 받았다.

올다"며 오래전 일을 웃음으로 무마했다고 한다. 청담 스님은 이때 현성 스님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현성이 가 공부해 줘야 되겠다"라며 매우 흐뭇해했다고 한다.

도선사 주지로 포교에 앞장서

현성 스님은 1980년 12월 도선사 주지를 맡으며 청담·석암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 국립공원에 군사보호지역까지 묶여 불사가 힘들었던 도선사를 맡아 12년 동안 도량을 정비하고 가람을 중창했다. 대웅전, 석불전, 명부전, 적묵당, 독성각, 요사, 종각, 사천왕, 일주문, 사적비, 청담큰스님 탑전의 108계단의 조성불사를 진행했다. 포교당으로 봉천동 혜명정사(顯 미타정사)와 흥은동 현성정사를 창건하기도 했다.

종단에서는 감찰국장을 시작으로 교육국장을 하며 불교신문 편집국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스님은 승려교육에 열의를 보여 직접 당시 총무원장인 경산 스님에게 승려

교육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총무원 총무부장 소임을 맡을 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설립과 경승제도의 기초도 만들었다.

특히 스님은 군포교에 관심을 가졌다. 현성 스님은 1980년대 14곳의 군법당을 건립하며 지금까지도 수계사로 전방부대를 누비고 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회장을 맡아 국가 안보 교육 등에도 나서고 있다.

"아무래도 군포교에 적극적이었던 청담 스님의 영향이 크지요.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전방부대에서 통일염원 기도를 올린 뒤 스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스님께서는 장병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군법당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스님이 도선사 주지 당시 건립한 혜명양로원은 불교노인복지의 대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불자들의 힘으로 건립을 이뤄냈다. 스님은 혜명양로원은 출가하며 봉양하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위해 건립했다고 말했다.

"내 한 몸이야 출가해서 이렇게 살지만, 내 부모에겐 불효자나 다름없으니, 그 불효를 늘고 병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나마 갚아야지요."

스님은 청소년포교 분야에도 나서 석주스님, 운문스님에 이어 청소년교화연합회를 맡아 현재의 사단법인 대한 불교청소년연합회로 발돋움시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교화위원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8년 '독지가 방문'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안양교도소에서 매달 한 번씩 딱국공양을,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수계식 때는 전 재소자에게 간식공양을 올린다.

이런 공로로 스님은 종정 표창을 4차례 받은 것을 비롯

해 복지부문 목련장, 교정교화부문 동백장, 통일안보부문 모란장 등 국민훈장을 받았으며 제3회 교정대상 자비상(법무부), 제1회 청소년 보호대상 '청소년 건전화 조성부문' 표창 등 수십차례 상을 수상했다.

이웃 보살피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

스님은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은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러 곳을 다녀보니 오히려 앓는 사람들이 보태서 쌀을 보내거나 합니다. 솔직히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보시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을 돕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선행, 보시행이 일상생활로 그렇게 젖어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느끼는 자신을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말 허름한 집에 위문을 가면 느낍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만족할 수 있구나. 수행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보살필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스님은 끝으로 청담 스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말했다.

"우리가 '지고 살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면 다름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심하면 다름이 이 아픔도 보게 되지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군중병은 한명의 포교사

경기도 가평의 어느 부대에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법회를 마치고 간식을 나눠주는데 한 훈련병이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삼귀의를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군생활을 하면서 삼귀의를 하는데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을 처음만났기에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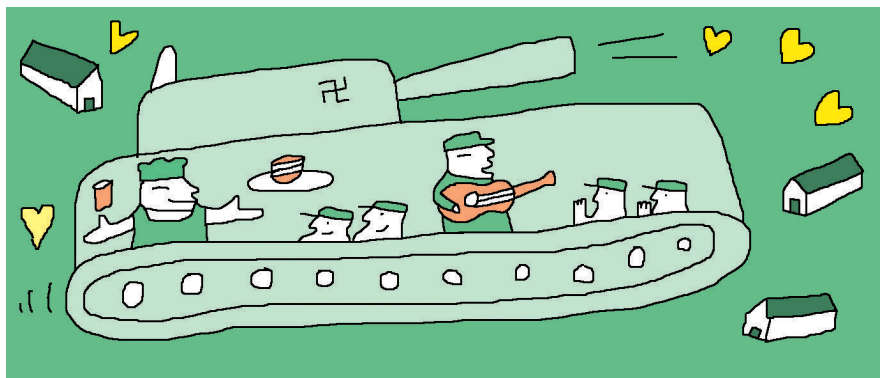
삼귀의를 하는데 눈물이 난다. 예전에 미국에서 온 현각 스님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자들이 애국가 들으면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귀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니... 전생에 스님이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다음 말이 저의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불자는 첫 번째 법회 때 삼귀의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 법회부터는 여단 군중병으로 선발돼 법회 집전을 돕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청년불자는 모르는 불교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법당 청소를 비롯해 심지어 재정관리, 병사관리 등 군중병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전역 후 다시 미국 필라델피아로 돌아가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시 동갑이었던 법사님과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불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군중병은 군대 내에서 계급이 병사일 뿐이지, 법사님이 부재할 때는 신도 안내를 비롯해 법회 보는 것을 돕기도 하고, 여러 법당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이뿐 만이 아니라 부대 내 생활관에서는 동료 전우들을 위로하고, 심리상담을 하는 역



그림·박구원

"스님, 그러니 저를 군중병 시켜 주십시오."

이 청년불자는 눈물이 나서 군중병이 하고 싶다는 것일까? 군중병이 하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한 것일까?

덕분에 이 청년불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청년불자가 살던 곳은 미국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나이는 28세로 다소 많았지요.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던 이 청년은 자원해서 군에 입대 한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좋은 근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병이 근기가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군중병이 전역할 때가 시점이 맞아지고, 신심이 깊어질 수 있었죠.

저는 과연 이 청년불자를 군중병으로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예비부대의 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중병 지원 병사가 있는데, 사람이 좋아 보이네요. 그쪽 부대 군중병 새로 뽑을 시기가 맞으면 한번 와서 만나보세요."

할 것도 많고 있습니다.

외부의 접촉이 많은 도심지 군법당에서는 어린이법회를 진행하기도 하며, 격오지 군법당에서는 직접 병사들을 위한 음식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포교사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이러한 군중병들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불교군중병을 하며 맺은 인연을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최근에는 군포교 일환으로 이러한 군중병들을 관리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명 한명 일당백의 포교사가 되어 활동할 것입니다. 군에서 맺은 인연이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도 일선 군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군중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행 이원수 군중병사 (육군학사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통일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밖에 사회복지 기여로 국민훈장 목련장, 교정교화 기여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바림등·공단등 : 6cm / 8cm / 10.5cm / 13cm / 20cm / 30cm

비닐만월등 / 비닐팔각만월등 / 영가만월등 / 장만월등

청사초롱등 / 오색청사초롱 / 비단접등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원기등 (20개입) @90,000원 (2BOX 이상)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φ



- 방수전선-22cm, 23cm, 25cm, 30cm
65,000원 (5줄이상) / 80,000원
- 방수전선-50cm
75,000원 (5줄이상) / 90,000원
- 방수전선-1m, 2m
90,000원 (5줄이상) / 100,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